

구성원의 총체적인 표현이 협회라고 볼 때 협회는 단지 길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해서는 해서는 안된다. 사냥감을 몰아주기도 하고 서투른 포수를 대신해서 총을 쏘기도 하며 잡은 사냥감을 찾아 오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때로는 잡은 사냥감을 맛있게 요리하여 상을 차리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모든 구성원이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가 되어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병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양계산업계가 웅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하부 조직인 각 지역 분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회원이 그 속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대규모 G.P. 센터의 공동운영 등 양계산물의 유통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 (가칭) '양계산업 합리화 자금'의 확보

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자금 등 설비투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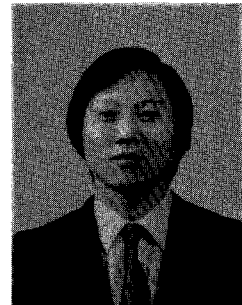
네째,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와 같은 협동조합적인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직접적으로 회원전원에게 이익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의 아시안 게임과 앞으로의 서울올림픽 등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의 양계산업도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제화의 추세에서 밀려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양계산업도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이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고 본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서 양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대한양계협회를 구심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힘을 합하여 같이 뛰면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어야겠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양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협회로

문 종 환
(축산시보 취재부기자)



한 단체가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데는 면면히 흐르고 뛰는 맥(脈)이 있어야 한다.

이 맥의 흐름은 일순간에 형성되어지고 뭉쳐져 한곳으로 흐름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

● 새해소망 / 양계업계에 바란다

충우돌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조각들만을 모아 타당성 여부를 따진 다음 하나의 맥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역사의 시제(時制) 앞에 침체되며 퇴색되어지는 순간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현재란 존재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역사의 시제란 반복성 위에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시제(時制)란 자연의 섭리 가운데에서 순응하고 변천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보다 차원높은 마음가짐과 사고관으로 주어진 순간의 시제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역사의 테두리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기자신을 자각하기도 한다.

양계협회는 그동안 양계인들을 위시하여 업계와 학계 및 연구분야의 상호 유대관계를 통해 20여 성상을 쌓아왔다. 또한 여러 각도에서 많은 발전상을 보여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헤쳐 나아가야 할 난제(難題)는 얼마든지 있다. 난제를 헤쳐 나아가는 데는 맥(脈)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역사성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면에 주안점(主眼點)을 두고 두가지로 구분하여 제3자적인 입장에서 동조하기 보다는 비판하는데 역점을 두려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맥을 이루는데는 어느 특정인간의 편협주의적인 이데올로기(Ideologie)만으로는 그 맥의 순수성이 결여됨과 아울러 역사적인 시제성(時制性)에 비추어 볼때 동떨어진 모순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맥을 이루는 데는 종합적인 견해가 일개인의 이데올로기적 생산보다는 다수가 집결하여 표출해낸 이데올로기적 생산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첫째, 양계협회 행정상의 문제점부터 말하기로 하자.

각자의 의식구조가 다른 양계인들이 모여 양계협회란 기치를 내걸었으며 그 안에 소속된 회원들이 양계인이라는 알맹이들이다. 알맹이 없는 쪽정(쪽정)이들은 바람이 불면 제멋대로 아무데곤 훑날

린다. 훑날리는 쪽정(쪽정)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재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쪽정(쪽정)이는 알맹이가 있을때에 쪽정(쪽정)이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제 본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알맹이의 손실을 방지하고 제 힘자라는대로 커갈수 있도록 알맹이를 보호하는데 쪽정(쪽정)이로서의 지고(至高)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쪽정(쪽정)이는 양계협회를 말한다.

집단을 이끄는 데는 많은 역경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집단의 질적문제와 선도자적인 차원에 의해 그 집단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능력이 결여된 존재의 무리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반면 우월성 있는 존재들로 구성된 집단은 선도자의 인솔능력에 의해 성패가 좌우됨과 아울러, 빛을 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유상종격으로 너나할것없이 하락된 가치만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양계협회의 회원들은 우월성 있는 존재들로 구성된 알맹이들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한 집단을 주관적 인식하에 판단하고 지휘 통솔함은 오도된 착상이다. 어디까지나 개체들의 모임인 집단은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전체적인 사고관을 주입시켜야 할 것이다. 양계인들의 권익을 본질로 하는 집단에선 더욱 그렇다.

현대는 인간의 소산물이 메카니즘에 의해 자꾸만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시기이다. 양계인들 가운데 인간성 상실로 지나친 이기심만을 내세우는 유아독존적인 언동을 취하는 사람은 없는지 묻고 싶다. 양계협회는 인간성 상실로 협회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회의 운영은 반복되는 패시브적인 운영이 아니라 반복성 있는 운영을 해나가되 때로는 반복을 탈피한 새로운 운영을 체계화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양계협회의 행정상 차원이 높아져야지 어느 일개인의 이데올로기적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특정 인물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양계인들 전체의 진로와 맥을 놓고 보

있을때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양계협회 종사자들의 수평적인 카운셀링이다.

인간은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를, 수직적 삶 보다는 수평적 삶을 영위하기 원한다. 맥을 있는데 있어 주체자는 여러면의 이슈 (Issue)에서 인식되어진 사항을 종합하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양계인들의 대표적인 협회는 수평적인 카운셀링을 더욱 피력해야 한다. 이러한 수평적 카운셀링이 아닌 지극히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수직적 카운셀링을 양계인들은 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시적이고 규범에 집착한 나머지 협회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지극히 정당한 조언을 버리고 협회의 냄새만 풍기는 처사 역시 맥을 이어나가는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제 양계협회는 고정된 체제와 구조의 구속에서 도식적이고 한정적인 사고 방식만을 유출해내는 운영에서 탈피하여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상호보완의 운영방식을 유출해 내야 할것이다.

양계인들과 협회의 개방적 흐름 가운데 정당

한 맥(脈)의 본질적 사향이 무엇인가를 자주 되뇌이게 될 때에 양계협회의 전통성 있는 맥은 그 윤곽을 드러내어 가치있는 방향으로 체계화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회원들의 참여없는 협회란 있을 수 없다.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겠거니 하는 피상적인 요구만을 요하지 말아야 한다. 발벗고 참여하는 의식을 기르는게 급선무다.

R. W. 에머슨의 말을 빌려 양계협회에 바라는 글을 맺으려 한다.

「연면(連綿)하는 전통은 가다가는 모호한 점도 있고 또 우화속에 그 자체를 상실하는수도 있지만, 이것을 눈앞에 놓고 사색하여 본다는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전통은 자기의 입각지(立脚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방해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주방의 시계는 항성(恒星)을 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리를 위한것이 지 정확하고 결정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회원을 수용하는 협회가 되기를

김혜령
(제일화학 마케팅부)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과 설계에 가슴이 부풀기 마련이다. 더구나 축산업

계가 불황이다보니 축산인이라면 누구나 새해에 거는 기대감은 자연 커질 수 밖에 없다. '86년